

主로 하여야지 詩序에 依하여 구태어 誤解할 수는 없는 것이다. 詩序가 만약 詩意에 맞는다면 그것을 따를 것이고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옛부터 傳하여 오는 것이든 또 孔子와 같은 聖인이 쓴것이든 子夏가 쓴것이든 排斥하지 않을 수 없다.

馬端臨은 文獻通考 辨詩序에서 主로 朱憲의 反詩序論을 論駁하고 있다.

詩書之序，自史傳不能明其爲何人所作，而先儒多疑之，至朱文公之解經，則依經文析而二之，而備論其得失，而於國風諸篇之序，詆斥尤多。以愚觀之；書序可廢，而詩序不可廢。就詩而論之，雅頌之序可廢，而十五國風之序不可廢。何也？書直陳其事而已，序者後人之作；藉令深得經意，亦不過能發明其所已言之事而已，不作可也。詩則異於書矣。然雅頌之作，其辭易知，其意易明。至於讀國風諸篇，而後知詩之不可無序。

蓋風之爲體，比興之辭，多於敘述，風諭之意，浮於指斥，蓋有反覆詠嘆，而無一言叙作之之意者，而序者乃一言以蔽之曰 爲某事也，苟非其傳授之有源，探索之無舛，則孰能臆料當時指意之所歸，以示千載乎……

作序之人，或以爲孔子，或以爲子夏，或以爲國史，皆無明文；然鄭氏謂毛公始以真諸詩之首，則自漢以前經師傳授，其去作詩之時，蓋未甚遠也。千載而下，學者所當遵守體認，以求詩人之意，而得其庶幾，不宜一切廢之，鑿空探索而爲之訓釋也。

馬端臨도 宋代 詩序擁護學자와 大略 같은 意見이지 特出한 論議는 없다. 그는 朱憲가 國風의 序를 특히 詆斥했는데 自己는 이 說에는 反對라는 것이다. 書經의 序는 直陳其事한 記錄이므로 序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도 그 本意가 明確하며 또 詩經에 있어서도 雅頌詩는 直陳其事한 것이어서 辭意를 쉽게 알 수 있으나 國風詩는 序가 없으면 絶對로 詩意를 알 수 없다. 風體는 比興之辭여서 거이 諷諭의 뜻으로 敘述되었으므로 叙作의 뜻이 한 마디도 없으나 序는 이것을 한 마디로 가리켜주고 있으니 序가 아니고는 千年前에 쓰여진 詩를 아무도 짐작할 수 조차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 詩序를 毛公이 처음으로 各詩의 첫머리에 나누어 넣었다는 鄭玄의 記述이 있는 것으로 보아 漢代以前부터 이미 傳授된 것이고 詩를 지은 時期와는 별로 멀지 않을 것이므로 詩序에 依하여 詩人의 本意를 求하여야 하며 詩序는 絶對로 廢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는 間接的으로 子夏가 詩序를 지었음을 示唆하고 있다.

宋代 保守派의 이러한 強力한 反撥에도 不拘하고 朱憲의 詩集傳은 元明代까지 詩經을 代表하여 一世를 風靡했다. 그런데 朱憲의 詩集傳은 清代以後 近代에 이르면서 또 다른 方向에서 攻擊을 받게 된다, 宋代 保守派로 부터는 廢序한것은 傳統의 常軌에서 逸脫한 것이라고 批難을 받았으나 近代에 와서는 朱憲의 詩集傳은 口으로만 廢序했음뿐 전혀 詩序의 範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相反된 立場에서 攻擊을 받았다. 清代 學者들의 論說은 후에 記述하기로 하고 詩集傳에 대하여 가장 辛辣하게 批難한 近人들의 論述을 例舉한다.

近人 鄭振鐸은 讀毛詩序에서 다음과 같이 詩集傳을 評하고 있다.

朱憲의 詩集傳, 雖然也是一堆很沈重, 很不容易掃除, 而又必須掃除的瓦礫, 然而在他的許多壞處裏,

最大的壞處，便是因襲毛詩序的地方太多 許多人都公認朱熹是一個攻擊毛詩序最力的，而且第一個敢把毛詩序從詩經裏分別出來的人，而在實際上，除了朱熹認國風的「風」字應作「風謠」解，認鄭風是淫詩，與詩序大相違背，其餘的許多見解仍然都是被詩序所範圍不能脫身跳出 所以我們要攻擊詩集傳，仍然須先攻擊毛詩序。

鄭振鐸은 朱熹의 詩集傳의 功績을 우선 認定하고 있다. 詩經에서 毛詩序를 分離시킨 것, 國風의 「風」字를 「風謠」로 解釋한 것, 鄭風이 淫詩라는 것을 認定한 것 等이다. 그러나 詩集傳은 여전히 詩序의 範圍內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 何定生은 詩經今論 卷三, 朱子對詩經의 分類에서 朱熹가 詩序의 範圍에서 벗어나지 못한 理由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案朱子對於詩經的樂歌解釋，除六笙詩外，其餘完全和儀禮的鄭注相一致 但鄭注對於儀禮的禮樂觀念，始終是離不了詩譜的，所以注釋的對象雖是儀禮的樂章，骨子裏仍然是一個有詩無樂的義理思想，這樣一來，不但一部儀禮的樂歌關係被曲解了，即 周禮禮記所有的樂歌關係世無不在同一原則下被曲解，這是鄭氏(也可以說是漢人)的詩教思想體系。朱子即依據儀禮來解釋詩經的樂歌關係，自不能不入鄭氏的玄中而不自覺，這也是朱子雖反序而也終於掙不了序說的基本原因 要之，義理思想是詩經解釋所以不能不受序說影響的宿命因素，只要離開原始的禮樂關係來解釋詩經，便不能不陷入漢人義理思想的網羅，一旦陷入漢人義理思想的網羅，則漢宋解釋的優劣，便所差無幾了。

何定生은 朱熹가 詩經의 樂歌를 鄭玄과 같이 儀禮的으로 注釋하였기 때문에 비록 廢序를 主張하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鄭玄注에 沒入하게 되었다하고 原始的 禮樂關係에서 벗어나서 詩經을 解釋해야 한다고 強調한다.

元・明代에 이르러서는 詩經研究가 적었던 것은 아니나 宋代와 같이 크게 活潑하지는 못하다. 이미 上述한 바 있드시 朱熹의 詩集傳이 通行本으로 行世하고 있었으므로 宋代의 議論이 延長되는 樣態였다.

(4) 清代諸說

清代는 學術活動이 매우 活潑하던 時代이다. 特히 清代는 疑古의 學風이 盛行하여 宋代 學術에 對해 反撥하는 氣風이 風靡하여 詩經研究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爭論이 擡頻되고 있다. 清代의 詩經學은 그 樣相이 크게 세 가지로分類된다. 첫째는 毛傳鄭箋을 追從하는 守舊派와 둘째로는 三家詩派. 셋째는 廢序派이다.

첫번째의 守舊派는 朱熹의 詩集傳에 反撥하여 詩經을 漢代의 毛傳鄭箋으로 回復시키려는 學派로 陳啓源(毛詩稽古篇)・閻若璩(毛朱詩說)・毛奇齡(白鷺洲主客談詩)・陳奐(毛氏傳疏)・戴震(毛鄭詩考正), 馬瑞辰(毛詩傳箋通釋)等을 代表的으로 들 수 있다.

陳啓源(字・長發, 康熙時 1662~1722 諸生)은 毛詩稽古篇 卷二十五 舉要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孟子所論讀詩之法，共要不外二端，一曰：誦其詩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 一曰：說詩者不以文害

詞，不以詞害意。然則學詩者必先知詩人生何時，事何君，且感何事而作詩，然後其詩可讀也。誠欲如此，舍小序，奚由入哉？……古國史之官早慮及此，故詩所不載者，則載之於序。其曰·王某公某人者是代詩人著其也。其曰·某之德某之化，美何人，刺何人者是代詩人白其意也。既知其世又得其意，因執以讀其詩，譬猶秉燭而求物於暗室中，百不失一矣。故有詩必不可以無序也。舍序而言詩，此孟子所謂害意者也。不知人不論世者也，不如不讀詩之愈也

陳啓源은 詩序를 強力하게 擁護한다. 그는 詩를 언제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왜 著作했는지를 모르고는 그 詩를 理解할 수 없으므로 詩序가 없이 어떻게 詩經을 理解할 수 있는냐고 한다. 그는 詩序가 누가 어떤 德化를 하고 누구를 讚美하고 누구를 諷刺했는가를 詩人을 대신하여 쓴 것을 옛 國史들이 後世의 讀者들을 爲해 載錄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詩序를 가리켜 어두운 暗室에서 물건을 찾는 데 촛불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詩에 詩序가 없어서는 絶對로 안된다고 한다. 또 詩序를 懷疑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若必求其證驗的切，別見他書史而後信之，則詩序與他書史皆案以前文字，而漢世諸儒傳之者也，安見他書史可信而詩序獨不可信乎？

그는 詩序를 秦代以前的 것으로 看做하고는 다른 先秦典籍은 믿으면서 왜 詩序는 못 믿는다는 것이냐？ 詩序도 漢儒가 傳한 것이니 믿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또 詩序의 著者에 대하여：

其篇義則有大小序，又子夏之徒爲之也，繼之則有詁訓傳而兩毛公，亦六國及先漢時人也。

그는 大小序는 子夏가 지었고, 詁訓하고 傳한것은 두 毛公이 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鄭玄의 說을 追從한 것이다. 그는 詩序가 先秦代에 著述되었다는 成見을 가지고 詩序를 대하고 있다. 또 그는 두 毛公 즉 大毛公인 毛亨은 戰國末 六國時代의 人物이고 小毛公인 毛萇은 前漢代 人物이라고 主張한다. 그의 論據가 무엇인지 明確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의 主張을 따른다면 毛詩傳은 秦火以前에 이미 行世하였다는 結論이 된다.

陳奐(碩甫 1786~1844)은 詩毛氏傳疏에서 詩序와 著者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總論關雎論語八佾篇云：關雎樂而不淫哀而不傷。此孔子論詩釋關雎之意，而子夏作序之所本也。毛公之學出自子夏，故傳與序無不合。釋文沈重云：鄭詩譜意大序是子夏作，小序是子夏毛公合作，然則毛詩真得聖人之教者矣。

陳奐은 子夏가 孔子의 뜻을 根本으로 詩序를 著述했고 또 毛公의 詩는 子夏에게서 나왔으므로 毛傳과 詩序는 맞지 않는 것이 없으며 毛詩는 聖人의 가르침을 眞正으로 體得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또 毛傳은 子夏의 序를 補綴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卜子夏親受業於孔子之門，遂彙括詩人本意，爲三百十一篇作序，數傳至六國時，毛公依序作傳，序意有不盡者，傳乃補綴之。

陳奐은 孔子에게서 詩를 傳授받은 子夏가 詩序를 지었으며 毛公이 이에 依해 傳을 지었다고 하며 그의 傳은 序意의 不盡한 것을 補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陳奐의 이러한 說은 결코 信憑性을 주지 못한다. 民國人 魏佩蘭은 毛詩序傳違異考에서 詩序와 毛傳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抽出하고 있다. 이에 몇 가지를 例擧한다.

葛覃：

序云·后妃之本也，在父母家，則志於女功之事。

傳云：大夫命婦成祭服，士妻朝服，庶士以下各衣其夫，……父母在則有時歸寧耳。

……蓋前者(序)是指女子未嫁之日而言，後者(傳)則指既嫁之後，在夫家而言，兩者意義與所言範圍是根本不相同

葛覃을 序에서는 未婚女가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라 하고, 傳에서는 既婚女가 시집에서 일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라 하여 뜻이 전혀 相反되고 있다.

鵲巢

序云·夫人之德也，國君積行累功，以致爵位，夫人起家而居有之，德如鳴鳩，乃可以配焉。

傳云·鵲鳩不自爲巢，居鵲之成巢。

……按傳詮詩，其理直而當，序乃迂迴曲折之，以強納詩意於「夫人」·「國君」之身，其與毛傳違異，固已甚明，而尤使詩旨晦澁難通之。

序는 詩의 內容과는 懸隔한 差異가 있다. 魏佩蘭은 本考에서 序와 傳이 相違한 것을 무려 二十二篇이나 例示하고 있다. 이로 보아 陳奐의 「毛公依序作傳，序意有不盡者，傳乃補綴之」는 成立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의 子夏作序說까지도 疑心을 받게 된다.

두번째, 三家詩派는 첫번째의 守舊派보다 한 발 더 溯及하여 毛詩에 滿足하지 않고, 齊·魯·韓 三家詩에서 詩經의 眞意를 求하려는 學派들이다. 代表的인 學者들로는 魏源(詩古微)·陳喬樞(三家詩遺說考)·龔橙(詩本誼)·皮錫瑞(詩經通論), 王先謙(詩三家集疏)等이다. 비록 三家詩가 散佚되어 殘缺篇이 많지 않아 詩經研究에 多大한 影響을 끼치지 못하는 못하고 있으나 三家詩를 穿鑿하여 詩意를 把握하려는 그들의 精神은 훌륭한 것이다.

魏源(默深 1794~1856)은 詩古微에서 毛詩序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惟後漢書稱衛宏作毛詩序，善得風雅之旨，而成伯璵因以今序首語次語爲別 則今序首句與笙詩例者 毛公師授之義，其下推衍附益者，衛宏所續之序明矣。

魏源은 詩序의 首句와 笙詩라고한 亡佚된 詩 六首의 序는 毛公이 그의 스승에게서 傳授 받은 것을 記錄한 것이고 그 以下の 序文은 毛公이 쓴 詩序의 首句에 대하여 衛宏이 推衍附益한 것이라고 한다. 成伯璵가 初句는 子夏가 쓰고 그 뒷 部分은 毛公이 詩中の 뜻을 敷衍한 것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毛公과 衛宏의 合作이라 하여 成伯璵와는 두 사람이 썼다는 것에는 뜻을 함께 하면서 著者에대하여는 異見을 提示하고 있다.

清末의 皮錫瑞(鹿門)는 詩經通論에서 :

毛序本不知出自何人, 或以爲本之子夏, 或以爲續於衛宏, 皆無明文可據, 即以衛宏續作, 亦在鄭君之前. 學者當崇爲古義, 不必爭論何人也.

皮錫瑞는 毛詩序가 누구의 著作인지 알 수 없으며, 或者는 子夏가 著述하고 或者는 衛宏이 續述하였다고 하나 모두 明確한 根據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後漢書나 隋書等 史書조차도 無視하는 態度를 취하고 있다. 그는 三家詩派의 한 사람으로 毛詩自體를 無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學者들은 마땅히 古義를 崇尚해야 함으로 毛詩序를 누가 著述하였던 爭論할 必要조차 없다고 한다. 이러한 皮錫瑞의 毛詩觀은 問題點이 있다. 古義를 崇尚하여야 한다면 과연 三家詩가 어느만큼 詩本然의 意義를 지니고 있는지 또 毛詩가 비록 늦게 出現되기는 하였으나 毛詩가 三家詩보다 얼마나 늦게 撰述되었다고 斷定하는건지 疑問이 가지 않을 수 없다. 三家詩가 毛詩보다 일찍 出現하였다고 하여 三家詩를 古義로 看做하고 三家詩만이 詩의 本意라는 것은 強辯이다. 그것은 三家詩 相互間에도 큰 乖戾가 있기 때문이다.

세번개의 廢序派는 清代 詩經學界에서 가장 注目되는 學派이다. 이들이 共同으로 標榜한 것은 詩經注解에서 禮教를 排除하고 先秦典籍에 依하여 詩人의 本意를 追求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毛傳鄭箋을 排擊하고 또 詩集傳, 三家詩說等 모든 舊說을 排擊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觀點으로 詩經을 考究한다. 代表的인 學者로는 姚際恒을 筆頭로 方玉潤, 崔述等을 들 수 있다.

清代에 이러한 研究方法을 最初로 開陳한 사람은 姚際恒(立方, 1647~?)이다. 그는 詩經通論·詩經論旨에서 詩序와 著者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詩序者, 後漢書云:「衛宏從謝曼卿受學, 作毛詩序」是東漢衛宏作也. 舊傳爲子夏作. 宋初歐陽水叔, 蘇子由輩皆信之; 不信者始晁說之 其後朱仲晦作辯說, 極意詆毀, 使序幾無生活處. 馬貴與忽吹已冷之爐, 又復尊崇, 至謂有詩即有序, 序在夫子之前 此本王介甫 以有序者存之, 無者刪之, 凡數千言. 無識妄談, 不顧世駭.

姚際恒은 詩序의 著者를 後漢 衛宏으로 斷定한다. 그는 朱憲가 詩序를 排斥하여 거이 蘇生할 수 없게 하였는데 宋末의 馬端臨(字貴與)이 다시 詩序를 尊崇하여 이르기를: 詩가 있으면 序가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孔子以前부터 있었고, 序가 있는 詩는 남겨두고 序가 없는 것은 모두 刪除하였으니 그것이 數千言이나 되었다고 無識한 妄談을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또 그는 古今僞書考에서 詩序가 子夏나 毛公의 著作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其謂子夏作者, 徒以孔子有起序者商也一語, 此明係附會, 絕不可信. 謂毛公作者亦妄也 毛公作傳, 何嘗作序乎?, 鄭玄又謂詩序本一篇, 毛公始分, 以置諸篇之首, 則亦信序, 而爲此說未必然也, 世又謂大序自是宏爲之, 小序則係古序 案漢世未有引序一語, 魏世始引之, 及梁蕭統文選直以爲子夏作, 因承前

人之訛也 鄭玄且以小序爲孔子作, 王安石且以小序爲詩人自製, 益可笑矣. 大抵大小序皆出于東漢范曄既明指衛宏, 自必不謬. 其大序固宏爲之, 小序亦必漢人所爲, 何以知之? 序于周頌潛詩曰: 「季冬獻魚, 春獻鮪」全本月令之文, 故知爲漢人也

詩序가 子夏의 著作이라는 說이 나온 것은 論語의 「起予者商也」¹¹⁾라고한 한 마디를 附會하여 마치 孔子가 子夏에게 詩經을 傳授한 것 같이 云謂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또 毛公은 傳만 지었지 序를 지었다고 한 事實이 없다. 詩序가 원래 一篇이었는데 毛公이 나누어 各篇의 첫머리에 두었다고 鄭玄이 論述했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또 大序는 衛宏이 짓고 小序는 秦漢以前의 古序라고 하나 漢代에 詩序를 引用한 것이 한 마디도 없으며 詩序의 引用은 魏代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 東漢의 衛宏이 지은 것이 틀림 없다. 또 周頌 潛詩序에 「한 거울에 물고기를 받치고 봄에는 상어를 받친다.」고 있는데 이것은 漢代의 月令에 나오는 글이니 이로 보아 詩序가 漢代人的 作임이 틀림없다고 한다. 그는 또 朱憲의 詩集傳을 詩經通論에서 다음과 같이 酷評하고 있다.

愚謂遵序者莫若集傳, 蓋深刺其隱也. 要而論之, 集傳只是反序中諸詩爲淫詩一著耳, 其他更無勝序處. 夫兩書角立, 互有得失, 則可並存; 今如此, 則詩序固當存, 集傳直可廢也

集傳만큼 詩序를 追從한 것이 없으며 다만 詩序와 反하는 것은 여러 詩가 淫詩라는 것을 認定한 것 뿐으로 詩序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는 없다. 지금 兩書가 각기 得失이 있어 並存하고 있으나 이제 詩序는 남기드라도 集傳은 廢해야한다고 그는 集傳을 酷毒하게 批難한다. 그는 詩經研究의 基本態度는 「禮」에서 떠나 考究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詩經通論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人言鄭康成長于禮, 康成苟眞長於禮, 必不以禮議詩矣.
說詩必不可以據禮, 集傳常蹈此病.

또 朱憲의 集傳이 詩序의 範圍에서 逸脫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禮」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姚際恒의 이런 自信心에 넘친 豪言에도 不顧하고 그의 說도 결국 後世 學者들에 의해 詩集傳보다는 進一步하였을뿐 完全히 詩序에서 逸脫하지는 못하고있다는 批難을 받기에 이른다.

何定生은 關於詩經通論¹²⁾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誤謬를 指摘하고 있다.

姚氏想徹底, 他罵集傳「佞序」, 這也的確, 集傳有許多從序說的, 集傳明從序, 姚明駁它; 集傳暗合序, 姚氏暗議它. 但姚氏自己也仍然用序說. 例如曹風蜉蝣篇, 序明謂: 「刺奢也 昭公國小迫……好奢而近

11) 論語 八佾篇·「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何謂也? 子曰 「繪事後素。」曰: 「禮後乎?」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12) 何定生, 詩經今論卷二 詩經的復始問題

小人。」姚氏去「奢」字而引爲：「大序謂刺昭公」，而論之曰：「第以下篇刺共公，此在共公前也。或謂刺共公，或謂刺曹霸，皆臆測」，然後自斷曰：「大抵是曹君奢慢，愛國之詞也。」明明偷了序的「奢」字。又周頌小毖篇，他說：「小序謂嗣王求助，集傳謂亦訪落之意，皆近混。」案集傳訪落云：「成王以道延訪羣臣之意。」而姚氏云：「此其王既誅管，蔡之後，自懲以求助羣臣之詩。」明明用序，且兼取集傳！這是姚氏暗用序處，其明用序處，更不勝枚舉了。」

何定生은 姚際恆이 비록 集傳이 詩序를 排擊한다하면서 詩序에 暗合하고 있다고 批難하면서도 그 自身이 도리혀 詩序를 採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例로 曹風의 蟋蟀篇과 周頌의 小毖篇等을 들고있다. 비록 何定生이 그가 詩序에서 完全히 逸脫하지 못하고 있다고 批難하기는 하나 詩序의 範圍에서 그만큼 逸脫한 從來의 註解는 없었다. 다만 姚際恆 自身이 詩集傳을 그토록 排擊하면서 無意識中에 詩序의 影響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漢代以後 一千五百餘年間 傳承되어 온 詩序가 學者들의 腦裡에 얼마나 甚大한 影響을 끼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方玉潤(文石, 1811~1883)은 詩經原始自序에서 그가 이 책을 쓰게된 理由를 다음과 같이 披瀝하고 있다.

迨秦火既烈而爲序始出，託名子夏，又曰孔子，唐以前，尙無異議，宋以後始有疑者 歐陽氏鄭氏駁之於，朱晦翁辯之於後，而其學遂微，然而朱雖駁序，朱亦未能出序範圍也，……故前之宗朱以故序者，今盡背朱而從序，輾轉相循……愚少時讀詩，至此未嘗不掩卷三嘆，徒致憾於尼山正樂時也，最後得姚氏際恆通論一書讀之，亦既繁微遠，引辯論於序傳二者之間，頗有領悟十得二三矣 而剖抉未精立論，未允識微力淺義少辯多，亦不足以鍼盲而起廢，乃不揣固陋，反覆涵泳參論其間，務求得古人作詩本意，而止不顧序，不顧傳，亦不顧論，唯其是者從，而非者正，名之曰原始，蓋欲原始人始意也。

方玉潤도 역시 朱熹의 詩集傳이 詩序의 範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批難하고 또 姚際恆의 詩經通論을 보고는 그것도 內容이 繁多하고 微遠하며 序傳에서 辯論을 이끌어내고 있을뿐 詩意는 不確實하므로 古人이 作詩한 本意를 求하기 위하여 不顧序，不顧傳，不顧詩經通論하고 오직 詩만을 爲主로 註解한다고 한다.

그는 또 詩序에 대하여는 詩經原始，卷首上 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詩必有題，題必有序，此定例也。今三百既無題，復無序 而世所傳大小序，又皆衛宏所託未可據，以爲信不得已，而考諸載藉求其可以爲詩序者，亦屬寥寥無幾。姚氏云：鶉鴉之爲周公賁王，見于書。載馳之爲許穆夫人，碩人之爲美莊姜，清人之爲惡高克，黃鳥之爲殉秦穆，見于左傳。時邁思文之爲周公作，見于國語。若此者眞詩之序也，惜其他不盡然

方玉潤은 世間에서 詩序를 衛宏이 지었다고 하나 根據가 없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고 詩序의 著者가 누구인지는 거이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姚際恆이 先秦典籍에 依하여 數篇의 詩의 作者를 考證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된 詩序이고 其他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고 한다. 그는 先秦古籍에서 詩의 著者나 本事를 밝혀내는 것이 詩의 참된 序라고 한다.

이는 姚際恒과 같은 意見이다. 그러나 그 역시 姚際恒을 批難하면서도 姚際恒과 같은 誤謬를 犯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何定生은 清儒對於詩經의 見解¹³⁾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他(方玉潤)以關雎爲民間歌詠, 非宮闈之詩. 他說·「此詩蓋周邑之咏初昏者, 故以爲房中之樂, 用之鄉人, 用之邦國而無不宜焉.」話雖如此, 但他究竟仍脫離不了詩序의 影響. 因此他又說:「然非文王太姒之德之盛, 有以化民成俗, 使之咸歸於正, 則民間歌謠, 亦何從而得此中正和平之音耶? 聖人取之以冠三百篇首, 非獨以其爲夫婦之始, 可以風天下而厚人倫也; 蓋將見周家發祥之兆, 未嘗不自宮闈始耳. 故讀是詩者, 以爲咏文王, 大姒也可, 即以爲文王大姒之德及民, 而因以成此翔治風也亦無不可. 何必定考其爲誰氏作歟?」……雖然如此, 但方氏終亦無以易其爲文王時詩의 思想, 則方姚之於漢儒間, 也不過五十步之與百步了.

그는 方玉潤이 關雎를 民間의 歌詠이고 宮闈之詩는 아니며 周邑의 初婚者가 新婚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라 하면서 이 詩가 文王時代의 作品이라는 것을 排除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詩序의 影響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方玉潤이나 姚際恒의 說은 漢代 儒家에 比하여 五十步百步에 지나지 않는다고 批評하고 있다.

清代 詩經研究家中에서 가장 特出한 人物은 崔述(東壁 1740~1866)이다. 그는 毛傳鄭箋 및 詩序등 舊說을 完全히 排除하고 歷史的인 觀念으로 詩를 討究하고 있다. 그는 從來 學者들이 先秦古藉인 尚書, 左傳, 國語등의 典籍에서 詩經과 連關되는 語彙를 抽出하여서는 이를 禮敎에 附會시켜 解釋하던 誤謬를 拂拭하고 禮敎的인 傳統觀念에서 逸脫한 歷史的인 觀點에서 詩經의 本意를 究明하기에 努力한다. 그는 詩序를 排除하였으므로 美刺說, 正變說등도 完全히 排除한다.

詩序의 著者에 대하여 讀風偶識 卷一 通論詩序에서 다음과 같이 論及하고 있다.

一 詩序乃後漢衛宏作. 唐人舊說以爲子夏毛公所作. 沈重云『案鄭詩譜, 大序是子夏作, 小序是子夏毛公合作. 卜商意有不盡, 毛更足成之.』此說非也. 何者? 史記作時, 毛詩未出. 漢書始稱毛詩, 然無作序之文. 惟後漢書儒林傳稱:「謝曼卿善毛詩, 乃爲其訓. 宏從曼卿受學, 因作毛詩序, 善得風雅之旨; 於今傳於世.」則序爲宏作所顯然無疑. 其稱子夏毛公作者, 特後人猜度言之, 非果有所據也. 記曰:「無徵不信, 不信民弗從」, 今衛宏作詩序現有後漢書明文可據. 如謂爲子夏毛公所作, 則史漢傳記從無一言及之. 不知說者何以不從其有徵者而惟無徵之言之是從也?

崔述은 詩序의 著者를 後漢 衛宏이라고 斷定한다. 그는 鄭玄의 大序는 子夏의 作이고 小序는 子夏와 毛公의 合作이라는 說은 잘못된 것이라 하고는 그 論據로; 史記에는 毛詩라는 言及이 없다가 漢書에서 처음으로 毛詩라는 것이 言及되었으나 詩序는 言及되지 않았으며 後漢書에 와서야 처음으로 詩序와 著者가 言及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後漢 衛宏이 지었음은 의심할 餘地가 없다고 한다. 그는 史書인 後漢書에 明確한 根據가 있으므로 이것이 바

13) 上揭書.

로 論證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詩序가 子夏의 作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一. 孔子魯人也. 孔子既沒, 七十子之徒相與教授於齊魯之間, 故漢初傳經者多齊魯之儒, 子夏雖嘗教授西河, 然究在魯爲多. 觀戴記所言多在魯之事, 而論語稱子游譏子夏之門人, 子夏之門人間交於子張, 則子夏之門人在魯者不乏矣. 齊魯既傳其詩, 亦必並傳其序. 何以齊魯家之詩均不知有此序而獨趙人乃得之乎? 蓋自毛公以後傳其說者遞相增益相附會, 宏聞之於師, 遂取而著之序耳. 而後之人乃奉序爲不刊之典, 其亦可嘆也夫!

「孔子는 魯나라 사람이다. 孔子가 죽자 七十弟子들이 齊魯의 兩國에서 스승의 學問을 教授하였기 때문에 漢初에 齊魯間에 儒者가 많았다. 子夏는 비록 西河에서 教授하였으나 거기 魯나라에 살고 있었으니 戴記에 그가 魯나라에 있었던 일을 記述한 것이 많으며, 또 論語에도 子夏의 門人들이 魯에 있었음을 言及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門人들이 魯에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齊魯 兩國에 詩가 傳하여졌다면 반드시 序도 傳하여졌을 것인데 齊魯의 詩에는 序를 말하지 않고 趙나라 사람만이 詩序를 얻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아마도 毛公以後 그것을 解說하는 者들이 潤益하고 附會하여 오던것을 衛宏이 스승에게서 傳授받아 詩序를 지었을 것이다. 後人들이 序를 尊奉하여 不刊之典으로 삼았으니 可嘆할 일이다.」

또 孔子나 國史의 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一. 以序爲子夏毛公所作, 固已不可信矣. 尤可怪者, 宋程子以大序爲孔子所作, 小序爲當時國史所作. 夫論語所載孔子論詩之言多矣, 若關雎章, 思無邪章, 誦三百, 以及與觀羣怨, 周南召南等章, 莫不言簡意賅, 義深詞潔. 而詩序獨平衍淺弱, 雖有精粹之言, 亦多支蔓之語, 絕與論語之言不類, 豈得強屬之於孔子! 至於各篇之序失詩意者甚多, 其文亦殊不類三代之文. 況變風多在春秋之世. 當時王室微弱, 太史何嘗有至列國而採風者, 春秋經傳概可見也. 以爲太史所題, 誣矣!

「序를 子夏와 毛公의 作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더욱이 程子가 大序는 孔子가 짓고 小序는 當時의 國史가 지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論語에 孔子가 論詩한 것이 많은데 그것들은 言簡意賅하고 義深詞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詩序는 平衍淺弱하고 비록 精粹之言이 있다고 해도 寸더더기의 말이 많으니 절대로 論語의 言語와는 다르다. 어찌 억지로 孔子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各篇의 序에 詩意를 잃은 것이 심히 많으니 그 文章은 三代之 文章이 아니다. 더욱이 變風이 대부분 春秋之世로 되어 있는데 當時에는 王室이 微弱하였으니 太史가 어떻게 列國에 가서 採風을 하였겠는가? 春秋經傳을 보면 알 수 있으니 太史가 지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上述한 바와 같이 崔述은 詩序의 著者를 先秦典籍과 史書를 通하여 史的인 觀點에서 立證하고 있다. 또 그는 舊說을 排除하고 詩意를 詩詞에서 求하기에 힘쓴다. 그가 詩解한 態度를 例擧한다.

葛覃

此篇據毛鄭說，以爲后妃在父母家女功之事。「言告言歸」謂將嫁。「汚私」，「澣衣」謂師氏告以適人之道。既於文義牽強，而與下「歸寧父母」之文亦相悖。且謂「葛施」喻形體之長大，「葉萋」喻容色之美盛，其義尤爲不倫。……此篇本爲歸寧而作，然不遽言歸寧，先言葛葉之生，時鳥之變，感物思親，此其時矣。

上述한 例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崔述은 舊說이나 禮敎에서 逸脫하여 詩詞중에서 詩의 本意를 求하고 있다.

梁啓超(卓如 1873~1934)는 古書眞僞及其年代에서 詩序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兩漢儒者說詩，從沒有提到有詩序，六經輿論說：「漢氏文字未有引詩序者，惟魏黃初四年有「曹共公遠君子，近小人」之語。蓋詩序至是而始行。」王先謙反駁這說。說左傳襄公二十九年，服虔解詁，太尉楊震疏，李尤漏刻銘，蔡邕獨斷，都已引用詩序。何嘗至黃初時始行呢？其實據我們看，那是不成問題的。左傳和詩序相同的只有「美哉此之謂夏聲」一句，那當然或是偶然，或是衛宏有意抄襲，西漢一代文字無有引用詩序的，也沒說詩有序，服虔李蔡固然是東漢儒者，但都在衛宏稍後，衛宏著的詩序，他們自然可以看到，後漢既然明說衛宏作毛詩序，我們又何苦奪他的功呢？

梁啓超는 詩序의 著者는 後漢書에 明記되어 있는 衛宏이라고 한다. 그는 六經輿論에 記載하기를：「漢代 文章에는 詩序를 引用한 것이 없고 黃初四年條¹⁴⁾에 詩序의 一句를 引用한 것이 있는데 詩序가 引用되기는 이것이 처음이리라.」고 하였는데 王先謙이 이를 反駁하여 말하기를：左傳 襄公二十九年條와 服虔의 解詁, 太尉楊震의 疏, 李尤의 漏刻銘, 蔡邕의 獨斷等, 漢代人의 文章에 詩序가 引用되어 있는데 黃初四年條에 처음 引用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左傳의 句節은 偶然이거나 衛宏이 自意로 抄襲한 것이고 또 服虔, 楊震, 李尤, 蔡邕은 衛宏보다는 後世사람들이므로 詩序를 引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5. 民國代諸說

中華民國이 建立되고 詩經研究는 1920年代부터 다시 活潑이 展開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詩經에만 限한 것이 아니고 古史問題를 現代의인 眼目으로 再檢討하고자한 作業에서 시작되는데 특히 詩經에 대한 새로운 研究가 매우 活潑히 展開된다. 그 中心人物로는 胡適과 그의 弟子 顧頡剛이고 鄭振鐸, 張壽林, 何定生, 俞平伯, 周作人, 錢玄同, 董作賓等이 參加하여 詩經에 대하여 討究하고 이들의 論文을 모아 古史辨¹⁵⁾에 묶어내고 있다. 勿論 이들이 現代 中國 詩經學을 代表하는 人物들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으나 民國以後 詩經學의 큰 milestones로 認知되고 있어, 이들의 論文中 詩序에 關한 것들을 引用하여 現代의 詩經學에서 詩序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現代 學者들의 詩經研究에서 注目되는 것은 「文

14) 三國志·魏志 文帝紀 黃初四年：「夏五月，有鵜鶩鳥集靈芝池，詔曰：「此詩人所謂汚澤也。曹詩『刺恭公遠君子，近小人』，今豈有賢智之士處於下位也？」

15) 臺灣明倫出版社刊行，全八冊

學]이라는 用語의 使用이다. 顧頡剛은 詩經在春秋戰國間的地位에서 다음과 같이 詩經學의 方向을 論及하고 있다.

詩經是一部文學書，這句話對現在的人說，自然是沒有一個人不承認的。我們既知道牠是一部文學書，就應該用文學的眼光去批評牠，用文學書的慣例去注釋牠，才是正辦。不過我們要說「詩經是一部文學書」一句話很容易，而要實做批評和注釋的事卻難之又難。這爲什麼？因爲二千年來的詩學專家鬧得太不成樣子了，牠的真相全給這一輩人弄糊塗了。

詩經을 歷史的인 觀點에서 討究하던 清代의 一部 學者들에 이어, 現代에 와서는 文學的인 觀點에서 研究되어야하는 時代로 轉移되었음을 示唆한 것이다.

鄭振鐸은 讀毛詩序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毛詩序最大的壞處，就在於他的附會詩意穿鑿不通。毛詩凡三百十一篇，篇各有詩，除六笙詩亡其辭，我們不能決定詩序的是非外，其餘三百五篇之序，幾乎百分之九十以上是附會的，是與詩意相違背的。……所以我們十分確信的說：詩序之說如不掃除，詩經之真面目便永不可得見。……

後漢書儒林傳裡明明白白的說：「衛宏從謝曼卿受學。作毛詩序，善得風雅之旨，至今傳於世。」范蔚宗離衛敬仲未遠，所說想不至無據。且即使說詩序不是衛宏作，而其作者也決不會在毛公衛宏以前。

鄭振鐸은 毛詩序의 百分之九十以上이 詩의 本意와는 違背되는 것이므로 詩序를 掃除하지 않고는 詩經의 眞意는 영원히 解得할 수 없게 된다. 詩序의 著者는 後漢書에 明白히 記載되어 있드시 衛宏이며 가령 衛宏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코 漢代以前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顧頡剛은 毛詩序之背景與旨趣¹⁶⁾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詩序者，東漢初衛宏所作，明著于後漢書。當東漢之時，左傳已行矣，故碩人·載馳·清人·新台諸篇之義悉取于左傳。史記亦已行矣，故秦·陳·曹諸國風詩得以史記所載之世系立說。著檮，魏等風，無復可以依傍者，遂惟有懸空立說而不指實其詩中之人。

顧頡剛은 詩序는 衛宏의 作이라하고 當時에는 이미 史記와 左傳이 行世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衛宏이 史記나 左傳에서 詩篇의 뜻을 取하고, 依傍할 것이 없는 詩는 멋대로 立說했다고 한다.

、劉大杰은 中國文學發展史, 周詩發展의 趨勢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到了東漢儒家思想在學術界成了權威的時候，就產生了衛宏的詩序。後漢書儒林傳裏說……在這裏，把詩序的作者時代及主旨，都說得非常明白，本來是什麼問題也沒有的。而後代儒家要故意擡高詩序的地位，也就是要擡高詩經在經典中的地位，於是發生什麼大序是孔子所作，又有什麼是卜商毛亨合作的種種謬說了。到了現在，幾乎人人都知道這種騙局，連說明的必要也是沒有了的。然而在過去二千年中，詩經的價值與意義，全包含在詩序裏面，詩經本身的文學價值，却完全降爲詩序的附庸的事，我們是必得注意。

劉大杰은 後漢書에 詩序의 著者는 衛宏이라고 明白히 著錄되어 있음에도 後代 儒家들이

16) 國立中山大學語言歷史學研究所週刊。第十集，第一百二十期，1930年2月16日刊。

詩序의 地位를 高揚하기 爲하여 여러가지 謬說을 開陳하고 이로 말미암아 詩經의 文學的 價値는 完全히 消滅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見解는 詩經을 文學的인 觀點에서 理解하려는 現代 學者들의 共同된 論述이다.

胡樸安은 詩經學에서 다음과 같이 論及한다.

孔門弟子, 傳六經之學者, 厥惟子夏. 詩序雖非子夏自作, 必生于子夏, 可斷言也. 經師所傳, 容有出入, 故毛魯有詳略, 韓毛有異同. 毛既祖述子夏之遺說, 其後如衛宏等又復增續之, 故詩義與傳義又有不相應者. 以是知毛詩之序, 淵源於子夏, 叙錄於毛公. 增益於衛宏等. 鄭康成詩譜, 王肅家語注, 後漢書儒林傳之說, 皆有可信; 不過各舉其一, 未能合而言之耳.

胡樸安은 現代學者中에서도 子夏作詩序說에 戀戀하는 사람이다. 그는 詩序를 비록 子夏가 著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淵源으로 나온 것이며 毛詩序와 魯詩序가 詳略이 있고 韓詩序와 毛詩序에 異同이 있음은 傳授되는 사이에 發生한 出入이다. 毛詩序는 子夏에서 淵源되고 毛公이 叙錄하고 衛宏이 增益하였으며 鄭玄의 詩譜, 王肅의 家語注, 後漢書儒林傳의 說이 모두 옳으나 그것들이 각기 한 가지씩만을 들고 모두를 말하지 못하였을뿐이라고 한다. 胡樸安의 이러한 說을 詳細히 檢討하여 보면 詩序는 子夏가 著作한 것이라고 強調하고 싶으나 明確한 根據가 없어 이 說도 옳고 저 說도 옳으나 역시 詩序는 子夏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強辯하고 있는 內容이다.

屈萬里教授는 詩經釋義에서 : 「詩序究竟是什麼人作者. 到現在還沒有定論.」이라고 明確한 言及을 避하고 있으나 古藉導讀에서는 다음과 같이 論及하고 있다.

至於詩序作者, 說者紛紜 大抵詩序首句 及其下申說之語, 殆非出於一手. 自宋以來, 學者或據後漢書儒林傳, 以爲申說之語, 出於衛宏, 似乎可信. 至其首句是否出於毛公, 則尙待考定也.

屈教授는 詩序의 著者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言及하고 있다. 그가 躊躇하는 가장 큰 理由는 詩序의 初句와 다음 句가 한 사람의 著作이 아닌 것 같다는 것에서 緣由되는 것 같다. 首句以下の 申說之語는 衛宏이 지은 것 같다고 매우 消極的인 言及을 한 것은 慎重을 期하는 것이리라.

東柱環師는 中國詩論, 毛詩序에서 그것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論述했다.

毛詩大, 小序의 作者에 관해서도 諸說이 紛紜하다 子夏가 詩序를 지었다고도 하나, 陸璣의 毛詩草木鳥獸蟲魚疏와 後漢書 儒林傳에는 東漢初의 經學者인 衛宏이 毛詩序를 지었다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어 子夏作序說은 信憑性이 희박하다. 그렇기는 하나 衛宏이 子夏以來에 傳承되어오던 毛詩序의 뜻을 지금 傳해지는 형태로 文字로 定着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車教授의 이러한 見解는 매우 妥當한 것이다.

近人 王大輅은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¹⁷⁾

17) 魏佩蘭著 毛詩序傳違異考에서 引用.

史記, 荀卿列傳: 「孟軻鄒人也, 受業於子思之門人……遊事齊宣王, 宣王不能用, 退而與萬章之徒序詩書, 述仲尼之意。」……詩序的文法多與孟子相同.

王大輅는 매우 特異한 論據를 提示하고 있다. 史記 荀卿列傳에 「與萬章之徒序詩書」라고 史書에 明確하게 記載되어 있고 孟子書의 文章과 그 文法이 詩序와 비슷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詩序는 孟子的 著作이라고 한다.

以上은 歷代 諸家の 詩序著者說의 略述이다. 諸說을 綜合 檢討하여 보면 다음 十四種으로 分類된다.

1. 子夏作, 小序毛公增益(鄭玄說)
2. 衛宏作(後漢書說)
3. 子夏裁初句, 以下大毛公作(成伯璵說)
4. 子夏創, 毛公, 衛宏潤益(隋書經籍志說)
5. 漢代學者作(韓愈說)
6. 太師作(歐陽修說)
7. 詩人自作(王安石說)
8. 大序孔子作, 小序國史作(程頤說)
9. 衛宏集錄毛氏之學(蘇轍說)
10. 首句孔子作, 其下毛公發明之(王得臣說)
11. 村野妄人作(鄭樵說)
12. 山東學者作(朱熹說)
13. 毛公門人記其師說, 衛宏集錄, 後人又增加(曹粹中說)
14. 孟子作(王大輅說)

上述한 諸說中 「孔子作詩序說」은 아무런 證據도 없으며 다만 儒家의 「非門弟子所能與也」라는 孔子尊崇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또 「孟子說」은 王大輅氏가 史記를 誤譯하고 있다. 「序詩書」는 결코 孟子가 詩經과 書經의 序를 著述했다는 뜻이 아니다. 또 書經序를 孟子가 著述했다는 說도 없거니와 孟子書도 孟子本人이 執筆한 것은 결코 아니다. 「詩人自作說」은 晁公武가 이를 反駁하여 論議의 餘地가 없다. 「太師作說」도 역시 確證할 根據가 전혀 없다. 또 「村野妄人作說」과 「山東學者作說」은 단순히 詩序를 屬倒한 것이지 어느 特定人에 對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問題視되는 것은 「子夏作說」과 「衛宏作說」이다. 「子夏作序說」은 鄭玄에서 비롯된다. 鄭玄은 後漢末의 大儒家로 毛詩傳에 箋을 써서 漢代에 學官에도 列立되지 못한 毛詩를 後代에 詩經의 代表本으로 이끌어 온 人物이다. 그는 漢代에 儒家의 傳統思想에서 離脫變質되어 가는 經典의 解說을 本軌道에 牽入하는데 努力하였으며 經典을

孔子思想에 附屬시키는데 至大한 功獻을 이룬 人物이다. 따라서 後世의 儒家들에게는 그만큼 鄭玄의 說은 絶對的인 影響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詩序의 文章體가 先秦의 文章體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諸家들이 論證한 바가 있다. 故로 「子夏作序詩」을 主張하는 學者들은 모두가 한결 같이 「毛公增益」이니 「衛宏潤益」, 또는 合作이라는 但書를 빼지 않고 붙이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子夏說에 自信感이 없다는 傍證이 된다. 前代 學者들의 子夏說에 대한 反證을 例擧하면 다음과 같다.

1. 詩序의 著者는 詩意는 明確하게 把握하려 하지않고 篇次에만 盲從하여 篇次의 앞 部分은 聖人治政 時代의 詩라고 하여 모두 美詩로 看做하고 뒷 部分은 亂政時代의 詩라 하여 刺詩로 看做하였다. 孔子에게서 詩를 學習한 子夏가 그러한 臆脫은 論述하지 않았을 것이다.

2. 詩序의 內容에 보면 漢代에 行世하던 諸書 즉 左傳, 史記, 禮記, 樂記, 國語, 公孫尼子 등에서 雜取하여 附會한 것으로 보아 詩序는 漢代人的 著述이다.

3. 詩序는 결코 毛公의 毛傳以前에 著述된 것이 아니다. 毛公이 詩傳을 著作할 때 詩序가 없었다면 當然히 序에도 解說을 붙였을 것이나 毛傳에는 없고 鄭玄의 注만 있다. 이것은 바로 毛公以後 鄭玄以前에 著作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4. 劉歆의 三統曆에 「文王受命九年而崩」이라는 잘못된 記述이 있다. 詩序의 著者는 이것을 모르고 詩序에 「文王受命作周」라고 引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의 著者는 劉歆(子駿 B.C. 23卒) 以後 즉 後漢代人物이다.

5. 漢代의 諸典籍中에 詩序를 引用한 文章이 없다. 詩序에서 引用했다고 明記되기 시작한 것은 三國志魏書의 黃初四年條에 처음 引用되었다.

以上 子夏說의 反證중에서 論據가 比較的 明確하다고 思料되는 몇 가지를 例擧했다.

衛宏說의 根源은 後漢書儒林傳이다. 後漢書의 撰者 范曄는 衛宏을 列傳에 載錄한 動機가 詩序의 著者라는 단 한 가지 史實에 基因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詩序의 著者라는 것을 알린 것 以外에는 그의 事蹟이 列傳에 登載될만한 것이 없다. 결코 그는 漢代에 屈指의 大 儒家는 못된다. 따라서 衛宏作序說을 否定하는 說의 大部分이 衛宏같이 보잘것 없는 儒者가 어찌 敢히 經典의 序를 著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焦點을 두고 있다. 裴普賢은 詩經研讀指導의 毛詩詩序注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范曄不察，取材於陸疏，逕謂宏作毛詩序，後人才以爲毛詩序均爲衛宏所作了 其後隋書經籍志謂詩序子夏所創，毛公 敬仲又加潤益，就以其精察校正後漢書之疏漏了.

裴普賢은 范曄이 陸璣의 疏에서 取材하여 衛宏이 作序했다고 하는데 隋書經籍志에 詩序는 子夏가 創作하고 毛公과 敬仲이 潤益했다고 하고있으니 後漢書를 撰한 范曄이 疏漏한 것으로 後漢書는 校正되어야한다고 한다. 裴普賢의 上記說은 現代 學者로는 매우 困難한

論法이다. 漢代의 史實을 考究하는데 後漢書는 信憑性이 없고 隋書를 追從한다는 것은 古籍의 史的考察에 違背되는 態度라하지 않을 수 없다.

詩序의 著者が 衛宏이라고 後漢書에 登載되었어도 大部分의 儒家들은 결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詩序가 詩의 本意와 乖戾되는 點이 數多하자 唐代부터 이에 대한 懷疑가 發生하고 宋代에 이르러서는 詩序를 廢棄하는 境地에 까지 이른다. 그러나 唐宋代의 詩序에 대한 懷疑는 결코 詩序를 歷史의 根據나 文學的 觀點에서 理解하려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孔子의 門人인 子夏가 어찌 그렇게 荒唐한 文章을 썼겠는가 하는 것으로, 그것을 詩經에 대한 冒瀆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廢棄하고 새로운 禮敎的 觀點에서 注解하려고한 것이다. 衛宏이 詩序의 作者로 斷定되기 시작한 것은 後漢書以後, 清代의 廢序派學者인 姚際恒과 崔述에서 부터 비롯된다 그들은 歷史的인 眼目에서 史書인 後漢書라는 史的 記錄을 土臺로 立證하고 있다. 勿論 衛宏같은 無名의 學者가 經典에 序를 著述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後代에 까지 傳來되었다는 것은 保守的인 儒家들에게는 警愕을 禁치 못할 大事件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 自身의 思考로 著述하였다기 보다는 先師들의 諸說을 綜合하고 또 當代에 行世하던 儒家書에서 雜取하여 儒家의 傳統思想에 附會시켜 集錄編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詩序의 內容이 序의 本意와 乖戾되고 謬說이 많다는 것은 그것이 偉大한 儒家가 아닌 無名의 小儒인 衛宏이기 때문에 當然한 것이다.

結 論

詩序가 詩經學에 甚大한 影響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漢代以後 二千餘年이 經過하도록 詩序에 對한 論爭이 終熄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現代 많은 學者들은 詩經의 理解에 있어 그 文詞에서 本意만을 取하면 되고 詩序는 마땅이 廢棄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鄭振鐸은 讀毛詩序에서: 「毛詩算是一堆最沈重, 最難掃除, 而又必須最先掃除的瓦礫.」라 하고, 王靜芝는 詩經 通釋에서: 「詩序之作者爲誰, 雖難確定, 但於詩之本身尙無重大之關係.」라고 한다. 그러나 反證으로이든 무엇으로이든 現代의 詩經研究書에 詩序가 例擧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그것은 詩序가 그만큼 詩經學에 甚大한 影響을 끼치고 있다는 實證이다.

詩序는 과연 어느 時代 누구의 著作인지 關係없이 掃除되어야 할 것인가?

詩經을 古代 百姓들의 哀歡과 貴族들의 生活相을 描寫한 純粹文學作品이라는 觀念에서 볼 때 詩經의 本態는 文學作品이며 이에 따라 詩序는 別意味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詩經을 禮敎의 敎本인 儒家經典의 觀念으로 볼 때 詩序의 影響은 莫大한 것이다. 바로 鄭玄이 衛宏의 詩序를 子夏의 著作이라고 強辯한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漢代는 儒家思想을 正統思想으로 標榜한 時代이다. 그러나 初期의 理念과는 달리 점차 儒家思想에 圖織說이 混入되어 孔子의 正統思想에서 적지않게 逸脫된다. 이런때 詩經界에 衛宏의 詩序가 나오자 三家詩에 食傷한 儒家들에게 正統의 儒家思想에 附會시킨 詩序는 대단한 人氣였을 것이다. 이러한 學界의 反響에 便乘한 것이 바로 鄭玄으로 그는 無名의 儒者인 衛宏이 詩序의 著者라면 그것이 輕視당할까 두려워 子夏의 著作이라 하고 또 漢代에 行世하던 典籍의 雜取가 많아 「小序是子夏毛公合作，卜商意有未盡，毛公更足成之」라고 苟且하게 但書를 附記하고는 毛傳箋을 著述하고 各篇의 首端에 詩序를 添加한것이라고 본다. 崔述은 다음과 같이 論述한다.

況宏果續前人之序，蔚宗豈得歸功於宏，而謂今所傳者爲宏作乎！然乃爲是說者，無他，皆由尊崇序說太過，惟恐言爲宏作則人輕之而不深信，而無如後漢書明明有宏作序之文。

崔述은 衛宏이 故序를 傳承시키기만 하였다면 後漢書를 撰述한 范曄이 구태어 무엇때문에 그 功을 衛宏에게 돌렸겠느냐고 한다.

論語에 依하면 孔子는 이미 詩를 倫理的, 政教的 觀念으로 引用하고 있다. 고로 孔子에게서 直接 詩를 學習한 子夏가 孔子의 觀念에 따라 詩를 理解하였을 것임은 明若觀火하다. 또 論語八佾篇에 孔子와 子夏間에 詩經에 對한 問答이 있고 孔子가 子夏에게 詩經을 自身의 뜻에 맞게 理解한것에 滿足을 表하는 文句가 있다. 또 班固의 漢書藝文志에 「自謂子夏所傳」이라는 句節이 있는 것에 着想하여 詩序의 著者를 子夏로 附會시킨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바로 儒家의 正統思想인 孔子思想에 詩經을 附會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 宋代의 儒家들중 廢序論을 主張하였으면서도 後世學者들에게 詩序의 範圍에서 逸脫하지 못했다고 批難을 받는 理由도 바로 그들이 詩經을 본 根本思想이 바로 詩序의 著者と 같이 禮教的인 儒家經典이라는 觀點에 基因된다.

存序論과 廢序論은 바로 詩經을 禮教的인 觀點에서 理解할 것인가? 또는 文學的인 觀點에서 理解할 것인가에 따라 分別되는 議論이다.

詩序의 著者를 究明함은 歷代 詩經學에 있어 어느 時代에 어떤 觀念下에 理解되었는가를 研究하는데 目的과 意義를 둔다.

參 考 文 獻

- 毛亨傳, 鄭玄箋 毛詩鄭箋三十卷
 孔穎達疏 毛詩正義四十卷
 歐陽修 詩本義十五卷
 鄭 樵 詩辨妄二卷(顧頡剛輯佚)